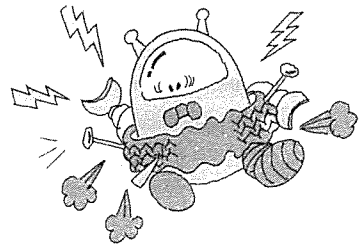


타이어 안전사용 캠페인1

공기샘에 의한 코드절단을 방지하자

타이어의 공기샘은 위험

타이어는 자동차의 발로서 여러 형태의 도로를 주행하게 되는데 도로 위에 있는 이물(못, 유리조각등)에 찢려 공기가 새서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고속주행 중에는 중대한 사고로 이어지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1 코드 절단은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가?

공기샘에 의한 코드손상이 발생하는 과정은 아래와 같다.

① 공개샘의 원인

- 타이어불량(외상, 못구멍, 고무갈라짐, 부분수리, 펑크수리 불량, 응급수리의 방지등)
- 튜브 불량(이상성장, 주름에 의한 갈라짐등)
- 밸브 불량(변형, 균열등)
- 밸브코어 고무패킹 불량
- 휠 불량(변형, 균열, 녹슬음등)
- 타이어와 튜브 사이의 이물 (튜브핑크)

② 공기가 새면 타이어는...

- 변형이 커짐(그림 1참조)
- 굴신운동이 심해짐(그림 1참조)
- 코드가 약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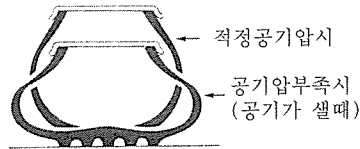


그림 1 공기압과 타이어의 모양변화

③ 그대로 주행하면...

- 타이어 코드가 녹음
- 코드가 절단됨(그림 2참조)



그림 2 공기샘에 의한 코드절단

2 주행중 공기샘은 알기 어렵다.

주행중에 공기가 서서히 빠지면 아래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 ① 핸들이 무겁고 운전하기 어렵다.
- ② 핸들이 한쪽으로 쏠리고 이상한 소리가 난다.

이러한 상태로 계속 주행을 하게 되면 타이어 측면 전원주의 코드가 절단된다.

3 방지방법

- 적정 공기압으로 사용해야 한다 자주 공기압 점검을 할 것
- 운행전에는 못찢림, 돌박힘, 외상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타이어 판매점에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 밸브캡은 필히 잠궈야 한다.
- 올바른 타이어 조립작업을 해야 한다.
 - 새타이어에는 새튜브, 새후랩을 사용할 것
 - 타이어 내부의 이물질 제거할 것
 - 수리한 부분은 다시 점검할 것
- 대형 튜브레스 타이어를 교체할 때에는 필히 밸브도 새것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연속주행의 경우에는 2시간에 1회 정도 휴식하여 타이어를 점검해야 한다.
- 주행중 휴식할 때에는 타이어의 공기를 빼지 말아야 한다.